

# 우간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1.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1
V. 종합의견 .....	13

## 우간다(Republic of Uganda)

### I. 일반개황

면적	197천 km <sup>2</sup>	GDP	168억 달러(2009년)
인구	32.3백만 명(2009년)	1인당 GDP	520 달러(2009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New Uganda Shilling (NUSh)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2,039 (2009년)

- 아프리카 동부 내륙에 위치한 우간다는 한반도와 비슷한 국토 면적(197천 km<sup>2</sup>)과 3,23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DR콩고와 접경하고 있음.
-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IMF와 World Bank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정책의 운영 기반 구축, 꾸준한 거버넌스 (governance) 개선 등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2010년 7월에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공동시장 규약이 발효되면서 우간다 등 5개 회원국의 활발한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이 기대됨.
- 정치적으로는 현 무세베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최근 국경 지대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수단, DR콩고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2009년 경제성장세 다소 둔화, 2010년부터 회복

- 요웨리 무세베니 (Yoweri Museveni)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용을 바탕으로 2006~07년에 수출 품목의 다변화,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평균 7.6%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2008년 들어 심화된 세계 경기침체, 국제 원유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 등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10.4%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FDI 감소 등으로 5.3%로 둔화되었음.
- 정보통신산업 및 금융산업의 호조, 부자갈리 (Bujagali) 수력발전댐의 완공 등에 힘입어 201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1%로 회복될 것으로 추정되고, 2011년에는 외국인투자과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6.3%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제 성장률	7.1	8.1	10.4	5.3	6.1
재정수지 / GDP	-2.2	-2.0	-1.9	-1.7	-3.0
소비자물가상승률	7.3	6.2	11.6	12.7	5.0

자료: IMF, EIU.

## □ 2011년 대선, 총선의 영향으로 재정 적자 확대

- 재정수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세수기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확충 및 각종 개혁 추진으로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2006~08년 재정 적자규모는 GDP 대비 평균 2%대를 유지하고 있음.
- 2009년에는 재정 지출이 수입 감소를 앞서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가 1.7%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2011년 2월로 예정된 대선 및 총선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적자규모는 3%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 풍년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둔화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까지 연간 한 자릿수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8~09년에는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의 상승세와 수단 남부지역의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식료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각각 11.6%, 12.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의 27.2%를 차지하는 식료품 가격이 풍년의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에는 경제 회복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6.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정책

### □ 낙후된 도로망, 부족한 송배전시설 등 경제 인프라 취약

- 세계은행은 '우간다 국가경제보고서'에서 규제완화와 같은 경제 정책만으로는 현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도로 건설과 전력 확충 등 경제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음.

- 우간다는 인도양에서 800km 떨어진 내륙국으로서 케냐의 몸바사(Mombasa)와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등 수출항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도로·철도망이 낙후되어 현재 물류 수송의 90% 이상을 도로에 의존하고 있고 수송비도 인근국보다 현저히 높아,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전력 인프라 개선도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임. 인구의 약 3~5%만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전력수요가 매년 약 6% 증가하여 초과수요량이 최대 발전용량의 50%를 초과하는 등 전력부족이 심각하여 산업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정부가 2008년 10월부터 크루아마(Kruama) 댐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수주자인 노르웨이의 노르팍파워(Norpak Power)사가 계약이행보증금 인상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실시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전력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 정보통신산업, 빠른 성장세

- 시장 자유화와 함께 5대 통신사(MTN Uganda, Zain, Uganda Telecom, Hits Telecom, Warid)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05~07년에 평균 61% 증가하여 2007년 500만 명, 2008년 800만 명을 돌파하였음. 경제성장과 맞물려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인터넷 시장도 인포컴(InfoCom)사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 2000년 4만 명에 불과하던 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8년에 255만 명까지 증가하였음.

## □ 풍부한 석유 매장량

○ 알버트(Albert) 호수 근처의 리프트 밸리(Rift Valley) 지역에서 매장량 7~10억 배럴, 일산량 3만 배럴의 달하는 유전이 발견되었음. 현재 아일랜드 툴로우(Tullow)사, 프랑스 토탈(Total)사,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사가 우간다 정부의 승인 하에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상업생산을 개시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정유공장 설립 및 인도양에 이르는 송유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 2010년 7월, 동아프리카공동체 공동시장규약 발효

○ 2010년 7월 1일부터 동아프리카공동체 (East African Community: EAC) 공동시장규약이 발효됨에 따라 5개 회원국(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브룬디) 간의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노동력, 자본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 경제개혁프로그램의 착실한 이행으로 국제사회의 신뢰회복

○ 지난 정권의 인권 유린과 경제정책 실패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던 우간다는 1986년 무세베니 대통령의 집권 후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아프리카 개혁 모범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음.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국제 원조를 근간으로 인프라 개발 및 장기 경제회복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세계은행 및 서방 원조국과 함께 진행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는 1987년 5월 '경제회복프로그램(Economy Recovery Program: ERP)'을 시작으로 통화개혁, 변동환율제 도입 등 물가안정과 시장경제 도입을 근간으로 시행되었음. 현재는 각종 규제 철폐와 민영화를 통한 FDI의 유입 등 회복을 넘어 성장을 목표로 한 경제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음.

### □ 규제완화를 통한 해외자본 투자유치 노력 경주

- 정부의 거버넌스 (governance) 개선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힘입어 2009년 FDI 유입액은 8억 달러로 2006년 6.4억 달러에 비해 24% 증가하였음.
- FDI 대상 분야는 유전 개발, 농수산물 가공 및 서비스 부문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규제 완화를 확대하여 원예, 식품가공 및 관광분야의 FDI 유치에 주력할 계획임.

## 3. 대외거래

### □ 2010년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규모 확대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주요 수출품인 커피의 가격 상승, 주변국과의 교역 확대로 인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륙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운송 및 화물 비용 부담,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부담 증가로 인해 만성적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수요의 감소와 국제 유가의 하락세에 따른 수입가격의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의 적자가 11.4억 달러, 8.8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14.3%, 4.6% 감소하였음
-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산업개발을 위한 자본재 수입증가로 수입규모가 확대되며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는 다시 확대되었음. 2011년에도 자본재 수입증가가 아라비카 원두의 수출 증가 효과를 상쇄하면서 적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lt;표 2&gt;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e	2010f
경 상 수 지	-438	-532	-917	-875	-924
경 상 수 지 / G D P	-4.0	-3.9	-5.6	-5.2	-5.3
상 품 수 지	-1,028	-959	-1,335	-1,144	-1,333
수 출	1,188	1,999	2,703	2,700	2,947
수 입	2,216	2,958	4,039	3,844	4,280
외 환 보 유 액	1,811	2,560	2,300	2,769	2,953
총 외 채 잔 액	1,260	2,775	2,594	3,095	3,519
총 외 채 잔 액 / GDP	11.4	20.5	15.8	19.6	19.8
D S R	6.6	7.5	5.3	5.4	5.7

자료: IMF, EIU.

## □ 외환보유액은 증가세

- 외환보유액은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통한 서방 국가들의 원조와 아울러 원예, 식품가공 및 관광부문의 FDI 유입 확대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말에 18억 달러이던 외환보유액은 2010년 말에 37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2011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수입 증가,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 정치 안정세 지속

○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30여개 종족들 간의 분쟁, 이디아민 (Idi Amin)의 폭정 등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어 왔으나, 1986년 현 대통령인 요웨리 무세베니 (Yoweri Museveni) 정권이 들어서며 정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05년 서방국가들의 압력이 있기 전까지 집권당인 국민저항운동 (National Resistance Movement: NRM)이 일당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무세베니 대통령은 대내외 비판을 받기도 하였음. 그러나 정치 안정, 경제성장과 사회적 생산기반 개선 추진 등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신망을 얻어, 2001년 재선에 이어 2006년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개헌을 강행하여 3선에 성공한 바 있음.

##### □ 장기집권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무세베니 차기 대선 승리 전망

○ 최근 무세베니 대통령이 2011년 대선의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야당의 반발은 물론 자신이 이끄는 NRM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음. 그러나 현 대통령을 대신할만한 후보가 없고 인구의 대다수가 집중된 농촌을 중심으로 두터운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어, 무세베니 대통령은 2011년의 대선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됨.

## 2. 국제관계

### □ 서방국 및 중국과는 양호한 관계, 주변국과 국경문제 갈등 지속

- 표면적으로 비동맹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서방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음.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도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주변국들과는 국경 지대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우간다의 수출항 역할을 하는 케냐와는 광산권과 관련하여 빅토리아(Victoria)호 미깡고(Migingo)섬에 대한 영유권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에는 DR콩고와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알버트(Albert)호의 루완지섬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수단 및 르완다와도 접경 지역인 음베(Yumbe) 지역과 카투마(Katuma)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싼 크고 작은 마찰이 지속되고 있음.

## 3. 사회 및 소요사태

### □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국민 노동력 부족

- 총 노동인력 중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최근 도시화로 생겨나는 일자리에 대한 인력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말라리아, 에이즈 등 질병의 만연이 높은 결근율과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져 경제발전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UN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09에 의하면 우간다의 평균 연령은 51.9세이며, 18세 이하의 젊은 층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무엇보다 에이즈, 말라리아 및 결핵으로 인해 성인 사망률이 높은 데에 기인함.

## □ 다양한 종족 및 종교 세력 분포

- 우간다는 다양한 종족과 종교 세력으로 이루어진 국가임. 부간다(Buganda)족, 이테소(Iteso)족, 바로가(Basoga)족 등 34개 종족이 있고, 종교적으로도 가톨릭 42%, 기독교 42%, 회교 12% 등 다양함. 이 같은 종족·종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간다는 그동안 무세베니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 아래 비교적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 한편, 최대 종족인 부간다족의 베티 캄야(Beti Kamy) 의원이 2009년 5월 우간다연방동맹(The Uganda Federal Alliance: UFA)을 설립하고 부간다족의 정치·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당의 공식 표어로 지정하는 등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종족간 알력이 중요한 정치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 정부군과 '주님의 저항군대' 간 오랜 내전으로 치안 불안 지속

- 우간다 정부군과 '주님의 저항군대'(The Lord's Resistance Army: LRA) 간의 내전은 지난 20년 이상에 걸쳐 치안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조셉 코니(Joseph Kony)가 이끄는 LRA는 우간다 북부 지역과 수단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살해하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납치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여 외국인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정정 불안을 초래하여 현 정부에 대항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2006년 수단 정부의 중재로 정부군과 반군 간에 주바(Juba) 평화회담이 열렸으나, 이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코니에 대해 비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협상이 결렬된 바 있음. 2008년 12월에 수단, DR콩고 및 우간다 정부군이 합동으로 벌인 LRA 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LRA의 보복 공격이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등 우간다의 치안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제한적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2. 외채상환태도

#### □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우간다는 IMF와 세계은행의 주요 경제개혁 프로그램 등을 성실하게 이행한 결과 2000년 5월에 고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이니셔티브<sup>1)</sup>의 완결시점에 도달한 데 이어, 2006년에는 IMF와 World Bank의 다자채무탕감 프로그램(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sup>2)</sup>을 통해 30억 달러 규모의 외채를 탕감 받은 바 있음.
- 국제 원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DSR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대외지급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OECD 회원국의 주요 ECA에 대한 연체금액은 미미한 편이며,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액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

1) HIPC 이니셔티브는 건전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고채무빈국을 대상으로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고채무를 지속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HIPC 이니셔티브의 완결시점에 도달하면 MDRI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가능함. 해당국은 MDRI 프로그램을 통해 Decision Point에서 결정된 채무구제액 중 기 실시된 잠정채무구제를 제외한 잔여 전체채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

&lt;표 3&gt;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10. 11.)	E (1998. 12.)
OECD	6등급 (2010. 10.)	6등급 (2009. 10.)
S&P	B+ (2008. 12.)	-
Fitch	B (2010. 10.)	B (2009. 8.)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3년 3월 26일 (북한과는 1963년 3월 2일)
- 주요협정 :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1992년)
- 우리나라와의 2009년 교역규모는 2,000만 달러임.
  - 주요 수출품은 무선통신기기, 회전기기, 고무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호식품, 어육 및 어란, 비철금속제품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 우간다 상품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 (2010년 9월말 누계, 총 투자 기준): 2건, 15만 달러

&lt;표 3&gt; 한·우간다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10,691	7,929	15,839	무선통신기기, 회전기기, 고무제품
수 입	3,068	4,009	4,428	기호식품, 어육 및 어란, 비철금속제품
합 계	13,759	11,938	20,267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의견

-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저소득국인 우간다는 취약한 경제 인프라와 지속되는 치안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운영기반과 정부의 꾸준한 거버넌스 개선 노력에 힘입어 2006~08년에 연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FDI가 크게 감소하며 경제성장률이 5.3%로 둔화되었으나 2010년에는 정보통신산업의 호조세, FDI 증가세 등에 힘입어 6.1%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됨.
  
- 정치적으로는 1986년 출범한 무세베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 아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군과 LRA 간의 오랜 내전은 사회불안 요소로 남아있음.

조사역 고안나 (☎02-3779-6665)

E-mail : [anna@koreaexim.go.kr](mailto:anna@koreaexim.go.kr)